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修養論)적 해석

-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

이경근

일리노이 대학교 조경학 박사 수료

1. 서론

본 연구는 성리학적 보기 방식에 근거하여 병산서원의 차경이 수양의 도구로 사용된 방식을 추론한다. 오늘날 병산서원은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친화성을 대표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원의 차경은 ‘투명한 창’ 또는 ‘비어 있는 병풍’ 등으로 불리면서 그 앞에 펼쳐진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틀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풍경미의 전형”으로 소개되면서 여타 문화권의 서원 건축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홍보되기도 하였다(World Heritage Convention, 2011). 결과적으로 서원은 그 사회문화적 의의(평가기준 ii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으나 그 설계적 전형성(평가기준 iv)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비어 있는 틀로 단순화된 차경의 기능이 자리한다. 차경의 비인위성을 강조한 결과로 성리학적 학문기관이라는 문화적, 장소적 맥락에 부합하는 차경의 기능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다. 자연의 순수성이 강조될수록 서원의 건축적 의의가 강화되는 논리구조가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차경을 자연주의적 표상으로 소비하는 현대적 시선에서 벗어나 서원을 설계하고 이용하던 인물들이 차경을 향유한 방식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전기의 시와 회화에 묘사된 풍경과 병산서원의 차경이 선사하는 풍경을 비교하고, 차경을 통한 조망이 산수시나 산수화의 감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소요(逍遙)하며 그 이치(理)를 깨닫는 여정을 대체하는 일종의 시물라크르르 기능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병산서원의 차경이 선사하는 경관에 성리학적 맥락을 부여하고, 차경이라는 시각적 틀을 ‘격물치지(格物致知)’라 불리는 성리학적 수양의 도구로 기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이상의 가설은 차경을 보는 이의 시선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설계 행위로 인식하고, 차경을 통한 조망을 시대적, 문화적 보기 방식의 실천으로 기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건축적 관점을 넘어 보다 광의적인 경관 문화의 한 갈래로 병산서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격물치지의 보기 방식

격물치지는 성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수양법으로 ‘사물에 다가가(格物) 그 이치에 이른다(致知)’는 의미를 가지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호혜적 관계를 인간의 사회윤리에 투사하려는 유비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병산서원의 설계자인 서에 류성룡과 그의 스승 퇴계 이황의 산수시에 묘사된 격물치지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풍경을 개관하기보다는 경물을 하나씩 살피며 풍경을 그려나가는 구도를 취한다. 둘째, 경물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경물과 경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 그루의 나무를 격물한다는 것은 곧 시선이 닿은 나무와 그 배후의 나무들이 형성하는 관계를 살피는 것이며, 격물치지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며 조금씩 숲의 관계망을 그려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방식에서 ‘세계’란 한 지점에서 뭉뚱그려 조망한 객체가 아니라 다가가는 만큼 확장되는 지평(horizon)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보기 방식은 존재 간의 상호작용(correlation)을 세계의 작동원리로 이해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음-양으로 구성된 태극의 이항(dyad)이 시사하듯이 존재 간의 ‘차이’를 생성과 변화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한 잔의 물을 용량이나 성분 구성으로 파악하는 대신 냉-온수의 대류로 직관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격물치지란 이러한 특수한 보기 방식을 통해 자연의 작동원리(理)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작동원리를 유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경물과 경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개인과 개인의 이상적인 관계맺음을 유추하는 것이다. 부부, 부자, 붕우, 장유, 군신의 이항으로 구성된 오륜(五倫)이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격물치지와 의경

산수화의 감상은 실제 경관에서 진행되는 격물치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한 폭의 그림을 소요하며 자연의 상호작용을 묵도하는 과정이다. 서구적 개념의 풍경화가 하나의 소실점으로 수렴하는 균질한 화면 구성을 이룬다면, 산수화는 경물들이 여백 사이에 두고 “양극화된 긴장”을 형성한다(Jullien, 2018: 67). 산(山)-수(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상승과 확장, 굳건함과 유연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작용을 연상하게끔 유도하는 화면 구성이다.

또한 산수화의 감상은 경물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조선 전기의 사의적 산수화는 흔히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제공하며, 정자나 인물 등으로 암시된 다수의 조망점을 통해 시선의 방향과 대상을 변화시키면서 보는 이의 상대적 위치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산점투시(散點透視)라 불리는 이상의 기법을 통해 고정된 시점에서 그림을 응시하는 대신 그림의 전개를 따라 시점이 재구성되고, 보는 이는 화폭의 내부

를 누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보기 방식은 병풍과 족자 등 수평적으로 긴 비례를 갖는 그림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퇴계와 당시 성리학자들이 향유했던 <무이구곡도>가 그 대표적 사례로, 그 감상 역시도 지형의 굴절에 의해 분절된 장면을 위에서 좌로 굽이굽이 살펴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소요의 끝에서 도달하는 의미는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진다. 보는 이는 화폭의 내부를 소요하며 경물들이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관계망을 그려나가고, 그 과정에서 주관화된 경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윤리(倫理), 즉 이상적인 사회의 작동 원리를 유추함으로써 산수화를 통한 격물치지는 마무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이념화된 경관의 이미지를 의경(意境)이라 부른다.

4. 병산서원, 격물치지의 장

병산서원의 중정 권역에서 조망하는 풍경은 산수화의 화면 구성 및 서사 구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첫째, 서원의 강당에서 바라본 풍경은 전형적인 산-수의 구도로 이해될 수 있다. 서원의 누각인 만대루의 지붕이 병산과 낙동강을 두 개의 독자적인 흐름으로 분절하면서 이들이 연속된 시각장(field of vision)으로 인지되는 대신 산을 올려다보고—강을 내려다보는 시지각 구도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만대루 좌우에 위치한 기숙사 건물의 지붕선은 병산의 봉우리 양 끝을 쳐올리듯 재단하면서 그 양감을 상쇄하고,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만대루의 계자난간은 완만히 굽은 강줄기가 직선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당시의 독법을 따라 위에서 좌로 시선을 옮겨보면 능선의 상승과 강물의 수평적 흐름이 이루는 ‘양극화된 긴장’은 더욱 강조된다.

둘째, 서원의 중정은 풍경이 소요의 장으로 전환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강당에서 출발하여 만대루에 올라서기까지 보는 이의 시선은 돌출된 산마루에서 시야를 매우는 녹음으로, 이윽고 넓게 펼쳐진 강변으로 이동한다. 접에서 면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지각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보는 이는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는 이는 불과 수 미터를 전진하는 동안 산마루를 올려다보고—산등성을 마주보고—산기슭을 내려다보는 상이한 시지각 구도를 경험하게 된다. 산수화의 산점투시와 마찬가지로 변모하는 풍경에 따라 보는 이의 상대적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풍경을 응시하는 대신 그 내부로 들어선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만대루는 중정을 거치며 고조된 공간감을 바탕으로 소요가 진행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무이구곡도>의 긴 화폭이 소요의 장을 제공하듯, 만대루의 긴 비례는 마늘봉에서 너들대벽에 이르는 폭넓은 장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여러 번 나누어 보도록 유도한다. 강당 쪽으로 물러앉으면 처마와 난간이 산마루와 강변의 풍경을 차단하고, 강변 쪽으로 당겨 앉으면 열주들이 좌우의 시야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는 이에게 허락된 것은 두 기둥으로 구획된 한 칸의 장면뿐이다. 병풍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풍경을 그려가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당시 유생들에게 이 장면은 곧 하회와 풍산을 오가던 통행로였다. 따라서 만대루는 통학의 여정을 점진적으로 복기하는 조망의 구도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미셸 코난(Michel Conan)은 경관의 경험이 “연상의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보는 이가 마주한 장면들이 “기억과 상상”을 통해 하나의 유의미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Conan, 2003: 23).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 만대루는 강당과 중정을 거치며 확립된 산-수의 심상과 통학의 여정이 하나로 수렴하여 주관화된 경관을 연상하게 하는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마늘봉에서 병산으로, 또 병산에서 너들대벽으로 오가며 마주했던 풍경들이 산-수의 이항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인 셈이다. 자연을 조망하며 그 상보적 작용을 연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면 하나 하나를 대면하며 그 작용의 관계망을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만대루는 격물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맺음말

성리학적 보기 방식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병산서원의 차경이 격물치지의 도구로 기능하였음을 추론해 보았다. 이는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서 자연과 보는 이의 관계로 차경 담론의 구도를 전환하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장치로서 차경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여타 서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차경 유산 전반을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방법론적 의의를 구체화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포토제닉한 장면을 넘어 장면과 장면 사이를 매개하는 연출 기법과 장치들로 차경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 둘째, 장면 자체에 담긴 의미에서 이를 바라보는 인물이 장면을 의미화하는 과정으로 해석의 초점을 이동한다. 셋째, 시지각적 분석과 더불어 시대적, 문화적 시각체제에 근거하여 차경 설계의 목적성을 도출한다. 이상의 접근을 바탕으로 도상학적 분석에서 해석학적 추론으로 차경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Conan, M.(2003) Introduction: Garden and landscape design, from emotion to the construction of self. In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11-33.
2. Jullien, F.(2018) Living off Landscape: Or the Unthought-of in Reas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3. World Heritage Convention(2011) Tentative Lists —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Submitted by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2011. 9. 12).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648/> [Accessed May, 2019].